

# 파열음 수준...트럼프는 종전·네타냐후는 확전해야 산다

### 네타냐후, 자제 요구에도 베이루트·테헤란 폭격 독자행동 상충되는 정치적 위기...트럼프, 전쟁 통제력 약화하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8일 이란을 상대로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약속했던 신속한 승리와 이란 정권 교체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해관계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날부터 이틀간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은 현재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이어지는 교착 상태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동시에 위태로운 휴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에 대한 이견과 이들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극명하게 비쳤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다. 이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 위기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노'하며 공습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은 전날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 다하예를 공습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 11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곧바로 이란을 향해 반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판에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이날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교전은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하려는 종전 협상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의 불씨를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고, 이는 전쟁에 대한 그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진단했다.

WSJ이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지구 예리코 인근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 잔해를 한 남성이 살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통령은 전날 이란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조

를 바꿔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각자 직면한 정치적 압박이 이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없고 유가를 끌어올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물가상승이 일반 유권자들을 이미 타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에는 외국의 불필요한 전쟁에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최신 드론으로 무장하며 부활한 헤즈볼라 격퇴에 힘쓰고 있으며, 이란 정권을 더욱 약화하기 위해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0월 크네세트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안보지형을 크게 개선한 강경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침투를 허용한 안보실패 책임, 가지지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집권 연장이 절실하다고 한다.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WSJ에 "트럼프는 석유 시장과 글로벌 소비자들이 받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英 연구진 “2026 월드컵 우승 가능성 1위 아르헨티나”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만 차례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편당 챔피언"인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보였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리언이 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딩대학교의 경제학자 제임스 리드가 이끄는 연구팀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경기 기록을 분석해 월드컵 결과를 예측했다.

연구 결과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치고 우승 가능성 1위에 올랐다.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뒤를 이었으며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

드, 독일, 우루과이도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리드는 대학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간 격차는 매우 작다"며 "대회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승 가능성 상위 1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 4개국이 포함됐다.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위에 랭크되었으며, 조별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맞붙는 멕시코, 체코 및 남아공은 각각 15위, 34위 그리고 3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美 “트럼프-시진핑 北비핵화목표 공유”

미국 국무부는 북중 정상회담이 8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한 데 대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그들의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현지시간)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중정상회담 결과 관련 발표 및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영국박물관, 42년만에 한국 특별전...런던서 이견희컬렉션

### 10월-내년1월...2천년 한국미술 탐구 청동기·고려청자·백남준·서도호까지

고(故) 이견희 삼성 현대 회장의 기증품을 모은 국의 순회전이 오는 10월 영국 런던에서 이어진다.

영국박물관은 오는 10월1일(현지시간)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기원전 30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에 걸친 한국 미술과 문화를 탐구하고 한반도의 풍요로운 창작의 역사를 선보이는 전시 '한국'(Korea)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근현대 미술 작품과 영국박물관 소장 한국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영국 대표 국립 박물관인 영국 박물관이 42년만에 여는 대규모 한국전이다. 이 박물관은 1984년 '한국미술 5천년전'을 열었다.

영국박물관은 "한국문화가 '한류'(Hallyu)로

몰리며 전례 없는 글로벌 존재감을 떨치는 시기에 그 역사적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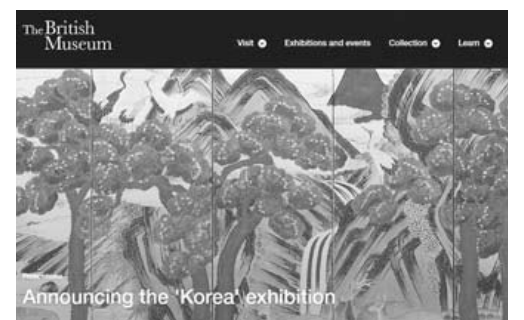
니컬러스 켈리넨 영국박물관 관장은 "2천년 넘게 한국 미술은 끊임없는 교류와 적용, 재창조를 통해 발전해 왔다"며 "사상과 형태가 세대를 거치며 재구성되고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이 더 넓은 세계와 대화를 통해 형성된 과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시카고박물관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견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2천년을 망라하는 작품들이 나온다.

영국박물관은 기원전 300-100년경 청동 제례 도구부터 한국 도자기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13세기 청자, 종교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낸 불화까지 선보인다고 전했다.

현대 미술로는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 김인승의 1965년작 '붉은 원피스'의 여



영국박물관 '한국' 특별전. /영국박물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인' 등이 전시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 서도호의 2019년 작품이자 영국박물관의 새로운 소장품인 '자화상'(Self-portrait)도 포함됐다.

영국박물관은 이 작품을 두고 "정체성과 이주, 기억이라는 주제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핵심 하이라이트"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 간의 지속적 대화, 문화적 정체성이 끊임없이 재정의 되는 방식이라는 이번 전시의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